

북방의 ‘서금’ 반석에서 홍색이야기를 듣다



길림시 남부, 송료평원이 장백산으로 이어지는 장백산 서록 구릉지대에 자리잡은 반석시는 47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현급시로 예로부터 교통요도이자 군사요충지였고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조선족들이 보따리를 풀고 삶의 터전을 개척한 고장이다.

1931년 ‘9.18사변’ 이후 적강아악(敵強我弱)의 형세하에 중공만주성위(할빈)는 중국공산당이 직접 령도하는 항일무장을 건립할 것을 각급 당 조직에 지시하였다. 당시 중공반석중심현위는 반석, 화전, 이통, 쌍양 등 현과 동풍, 서안(지금의 료원), 해룡(지금의 매허구), 영길, 몽강(지금의 정우현), 흥경(지금의 신빈) 등 현의 당조직을 직접 관할하는 중추 기관으로 이 지역들에서 항일무장을 조직하고 령도하였다.

1932년 10월, 중공만주성위 군사위원회 서기 양정우는 이곳(화전현 봉밀정자)에서 중국공농홍군 제32군 남만유격대를 건립하고 4차례의 반‘포위토벌’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기초하에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후에 동북항일련군 제1군으로 개편되었다)가 동북항일련군 제2군과 함께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으로 개편됨을 건립하고 일본침략자 및 그 주구들과 피어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렇듯 영광스러운 항일력사를 가지고 있는 반석시는 홍색자원을 부단히 개발하여 홍색라자항일유적근거지 유적, 련화산동북항일련군홍색문화교육기지, 반석시동산공원, 반석시항일투쟁기념관, 리홍광기념관 등 홍색관광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앞전에 기자는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부회장 류대진과 연통산진 동흥촌 당지부 서기 리정일 등의 안내하에 반석시동산공원, 리홍광기념관, 홍색라자항일유적근거지 유적, 연통산괴뢰

박격포련기의 유적, 석호구정당군금지, 반석시항일투쟁기념관(반석시박물관) 등지를 답사하면서 반석이 낳은 항일영렬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반석시동산공원은 1947년에 건설된 반석시혁명렬사릉원을 기초로 2017년에 확건한 홍색 레저공원이다. 공원내의 ‘붉은기광장’, ‘양정우동상’, ‘반석6학자광장’ ‘첫번째 총소리 광장’ 등이 유명한데 모두 남만의 가벌처절했던 항일투쟁을 주제로 하였기에 매우 인상적이었다.

레하면 ‘반석6학자광장’에 경립된 6학자의 전신상은 1931년에 붓을 던지고 항일무장투쟁에 투신한 반석현립중학교(현재의 반석1중)의 맹결민(孟杰民), 초향신(初向晨), 왕조란(王兆兰), 류국문(刘克文), 후유춘(侯维春), 강백성(江柏生) 등 청년들의 혁명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이중 맹결민, 왕조란, 초향신은 민정부에서 공포한 저명한 항일영렬 명록에 이름을 올린 련사들이다.

반석시에서 서쪽으로 23키로미터 떨어진 홍색라자산구에 자리잡은 홍색라자항일유적근거지는 남만에서 중국공산당이 건립한 첫 항일무장인 남만유격대의大本영이고 중국공산당이 남만지구에 건립한 첫 항일근거지이다. 남만유격대는 이곳에서 14년 항일투쟁의 첫 총소리를 울렸으며 이곳에서 동북항일련군 제1군을 건립하였다. 국가 민정부에서 2014년, 2015년, 2020년 3차례에 걸쳐 공포한 저명한 항일영렬 명부에는 이곳에서 싸웠던 19명의 항일장령들이 포함되어있다.

그들로는 바로 제1차 명부 속의 맹결민(1912-1933), 리홍광(조선족, 1910-1935), 왕인재(1910-1935), 송철암(1909-1937), 양정우(1905-1940), 제2차 명록 속의 왕조란(1910

-1933), 초향신(1910-1933), 박한중(조선족, 1911-1935), 리송파(조선족, 1904-1935), 소검비(1907-1935), 한호(조선족, 1905-1935), 리민환(조선족, 1913-1936), 조국안(1900-1936), 기유립(1910-1937), 리동광(조선족, 1904-1937), 양준항(1910-1938), 한인화(만족, 1913-1941), 류만희(조선족, 1917-1940)와 제3차 명록 속의 김창근(조선족, 1907-1935) 등이다.

홍색라자항일유적근거지 유적지에는 항일련군밀영, 병원, 피복공장, 중공반석중심현위 옛터, 채소 읍과 전호 등이 복원되어있다.

반석에서 50여키로메터 떨어진 연통산진 경내에 자리잡은 련화산동북항일련군홍색문화교육기지는 양정우가 이끈 항일련군의 중요한 활동 유적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석호구정당군금지’광장과 ‘정우옥’ 그리고 ‘항일련군사적전시관’이 있어 많은 유람객들에게 혁명전통교양을 진행하고 있다.

연통산진은 연통산역으로 유명하다. 연통산진 경내에는 현재 삼길철로, 연백철로가 경유하는 연통산역 등 4개의 기차역이 있으며 삼길고속도로, 202국도, 장청국도, 성도인 연환선, 장백선 등 5갈래 도로가 있어 명실상부한 교통요도이다.

1930년대 연통산역은 길림에서 조



/ 김태국기자

전지 작품에 담긴 홍색력사… 애국주의교양 플랫폼 제공

중국공산당 창건 104주년을 경축하고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장춘공업대학 예술설계학원 공청단위원회는 일전 ‘예술 + 사정’(艺术 + 思政) 혁신융합을 리념으로 ‘홍운장권, 종이예술전승’(红韵长卷, 纸艺传承) 대형 주제전지예술작품전을 조직하였다.

이 작품전에 학원 청년리론동아리 ‘예향사’의 근 50명 공청단원들이 참여하여 14조의 거대한 전지(剪纸) 작품을 창작해냈는데 길이가 근 10미터, 높이가 근 4미터에 달했다. 청춘세대의 장인 정신과 홍색 신앙이 응집된 이 작품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전지를 담체로 력사에 길이 빛날 일련의 중대한 력사 절점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매 한폭의 화면 모두 파란만장한 항전 력사에 대한 깊이있는 응축과 깊은 정감을 표하였다.

작품전은 몰입식 학습 체험을 앞심들여 조성하였고 각 작품에는 모두 중

요한 력사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이와 동시에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해설원 대오는 종이 우의 력사 기호를 생생한 서술과 생생한 시공간의 대화로 전환시켜 응고된 전지에

술이 힘찬 사상 령량을 발산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적 전시와 동적 해석이 결합된 방식은 사상정치교육을 수업에서 전시장으로 확장하여 홍색력사가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불

양진에 이르는 길해철도의 중요한 역이였기에 이곳에는 일본수비대와 괴뢰박격포련이 주둔해있었다.

1932년 봄, 당조직의 파견을 받은 공산당원 조국안(산둥군정대학 졸업생)과 송철암(북평중국대학 졸업생, 조국안의 외조카)은 영길현 울라가의 괴뢰 철도경비 제5려 제14환 박격포련에 ‘참군’하여 비밀리에 책반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간고하고도 세밀한 선전교육을 거쳐 중국공산당의 주장과 정책을 료해한 이 련의 많은 사병들은 일본침략자의 ‘망국노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총부리를 돌려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할 것을 결심하였다.

조국안, 송철암, 장서린의 령도하에 이 부대는 남만유격대 활동지역과 거리가 가까운 반석현 연통산진 수비 임무를 집행하는 유리한 시기를 리용하여 1933년 5월 28일 야밤중에 괴뢰련장을 사살하고 기의를 일으켰다. 29일 이른새벽에 연통산진을 벗어나 련화산 부근에 이르러서 인원을 확인하니 63명이었고 무기장비는 보총 50자루에 박격포 1문, 포탄 17상자였다. 이 대오는 후에 중국공농홍군 제32군 남만유격대의 박격포대대로 개편되었고 조국안이 대대장을, 송철암이 대대 정위를, 장서린이 중대장을 담임하였다.

연통산기지는 인민무장력량을 장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괴뢰군 속에서 련쇄반응을 일으켜 괴뢰 14환은 그후에도 여러번 총부리를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 적들의 ‘포위토벌’이 매우 빨리 흐지부지해졌다. 연통산기지를 통해 항일구국의 기치를 높이 든 반장 한인화는 후날 항일련군의 우수한 지휘원(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총사령부 참모 겸 경위려 정위)으로 성장하였다.

기이후 조국안은 박격포대대를 거느리고 유격전쟁에 뛰어들었다. 첫 투는 반석 동북자전투였는데 박격포로 7발을 발사하자 적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유격대가 박격포를 사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북방의 ‘서금’이라 불리는 반석에 가면 가는 곳마다에서 항일영렬들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고 영렬들의 항일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마음이 경건해진다.

/ 김태국기자

[항일명장]

항일민족영웅 양정우

유명한 항일민족영웅 양정우는 동북항일련군의 주요한 창시자와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양정우의 본명은 마상덕이며 1905년 하남성 확산현의 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양정우는 학창 시절에 반제애국운동에 적극 투신하였다. 1926년에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하고 1927년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대혁명이 실패한 후, 양정우는 확산봉기를 조직하고 농민혁명군의 총지휘를 맡았다. 1928년 가을에 개봉, 락양 등지에 가서 비밀혁명사업에 종사하였다. 1929년 봄, 양정우는 동북에 가서 중국공산당 무순특별지부 서기로 있으면서 로동자운동을 령도하였다. 양정우는 하남성과 동북에서 5차례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여러차례 가혹한 고문을 당했으나 시종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1931년 ‘9.18’사변 이후 양정우는 중공할빈시위 서기 겸 만주성당위 군사위원회 대리서기로 있었다. 1932년 가을 남만에 파견되어 중국로농홍군 제32군 남만유격대를 조직하고 정치위원으로 있으면서 반석 홍색라자를 중심으로 한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였다. 1933년 9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제1독립사 사장 겸 정치위원으로 있었다. 1934년 4월, 17개 항일무장과 련합하여 항일련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총지휘를 맡았다. 같은 해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군장 겸 정치위원을 지냈으며 1936년 7월에는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총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있었다. 양정우는 부대를 거느리고 장기간 동남만 대지를 전전하면서 싸웠는데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일본군과 괴뢰군은 련속되는 타격을 받은 후 동북항일련군에 대



한 군사‘토벌’, 경제봉쇄와 정치적투항 권유를 다그치는 동시에 양정우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에 나섰다.

1939년 동남만지구의 추동 반‘토벌’작전에서 양정우는 부대를 지휘하여 싸움에 나섰다. 자신은 경비려단을 이끌고 길림 몽강 일대를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홀몸으로 적들과 5주야를 싸웠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끈기로 적과 완강한 투쟁을 견지하면서 탄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데 1940년 2월 23일 몽강현에서 35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되었다. 2009년, 양정우는 ‘새 중국 창건에 뚜렷한 기여를 한 100명의 영웅모범인물’로 추서되었다.

간고한 투쟁에서 양정우는 확고한 신앙과 신념, 고상한 애국지조와 위대한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으며 백산흑수와 림해설원의 깊은 곳에 불요불굴의 민족 기량을 우뚝 세웠다.

/ 구시넷

[혁명유적지]

영웅적 력사와 애국주의정신을 되새기는 장소

연변혁명렬사릉원



연변혁명렬사릉원은 1992년에 중공연변주위, 연변주정부가 연길시 혁명렬사릉원을 기초로 개축, 증축한 것인데 기념비에 혁명렬사기념관, 납골당, 련사묘, 련사명부비 등이 있다.

정문 현판의 ‘연변혁명렬사릉원’ 제자는 당시 중공중앙 고문위원회 부주석으로 있던 송임공(宋任穷)이 쓴 것이다.

연변혁명렬사기념비는 높이가 19.28미터로 이는 연변지역이 1928년에 당의 지도 아래 혁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상징한다. 기념비의 사면에 펴려있는 붉은 기발은 항일전쟁, 해방전쟁, 항미원조, 그리고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네가지 력사적 시기를 대표한다. ‘혁명렬사 영생하리라’라는 제자는 당시 중공중앙 총서기였던 강택민이 쓴 것이다.

기념비 광측에는 두개의 대형 조각상이 있는데 동쪽 조각상은 연변항일 군민들이 일본침략자에 맞서 용감히 싸운 모습을 묘사하고 서쪽 조각상은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전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연변혁명렬사기념관의 관명은 당시 길림성당위 부서기이며 연변주당

위 서기였던 장덕강과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조룡호가 각각 한문과 조선어로 쓴 것이다. 혁명렬사기념관의 전시면적은 945평방메터로 풍부한 그림과 실물이 진렬되어 있으며 각 력사시기 연변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앞장서 나아가고 뒤를 이어 영웅하게 싸운 빛나는 로정을 반영하고 있다.

연변혁명렬사명부비는 21개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력사시기에 희생된 연변주 8개 현시의 1만 7,736명 련사들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연변혁명렬사 영생하리라’는 제자는 원 전국정협 부주석인 조남기가 쓴 것이다. 명부비 뒤편에는 600여명 련사들의 유골이 안치된 련사묘역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전국 혁명전통교양 100개 중점기지중 하나로서 중공중앙 선전지로 명명되었다. 연변혁명렬사릉원은 2001년 6월 중앙선전부에 의해 전국애국주의교양시범기지로 공포되었으며 2004년에는 중공길림성위에 의해 중국공산당당사교양기지로, 중공연변주위에 의해 ‘중국공산당당사교양기지’로 명명되었다.

/ 연변혁명렬사릉원